

3세 유아와 아버지간의 애착 안정성과 외존성: Q-Sort 가정 관찰*

이 영 환

전북산업대학교 유아교육과

본 연구는 만3세 유아와 아버지 70쌍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 간의 애착관계를 살펴보았다. 애착관계에 대한 내적 실행모형을 행동으로 기술한 애착 Q-Sort(Waters, 1987)을 사용하여 자연스런 상황인 가정에서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한 유아의 애착행동을 관찰, Q-분류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에 대한 유아의 애착 안정성은 $-30 \sim 57$ 로 나타나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어머니에 대한 안정성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외존성은 $-49 \sim 50$ 이었다. 애착안정성과 외존성은 개념적으로 서로 독립적으로 나타나 외국의 애착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애착구성간의 개념적 유사성이 12개월 유아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가 애착대상을 아버지로 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에 유아의 애착 안정성이 어머니를 애착대상으로 하여 진행된 선행연구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따라서 안정성과 외존성 간의 관계가 12개월 유아의 경우에서처럼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유아가 어머니보다 아버지를 안전기저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덜 효율적임을 시사한다.

유아가 탐색과정에서 성인을 안전기저로 사용하는 능력과 애착행동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인 '낯선 상황'(Ainsworth & Wittig, 1969; 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이 표준화되고 타당화됨으로써 유아-양육자간의 애착관계는 유아의 양육자에 대한 행동 유형을 통해서 파악될 수 있게 되었다. 이 도구는 애착행동에 있어서의 개인차의 선행요인을 설명 가능케 해주었으며, 애착관계가 시간에 걸쳐 안정적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안정 대 불안

애착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기질과 같은 유기체 내적인 요인보다는 양육유형의 반영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Waters & Deane, 1985). Ainsworth의 '낯선 상황' 실험을 통해 유아의 양육자에 대한 안정애착과 불안애착 개념을 수량화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애착은 부모-자녀 관계 연구에서 인기있는 주제로 부상되었으며, 애착의 선행요인과 애착의 발달적 결과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의 애착연구 경향을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

* 이 논문은 1993년도 교육부 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있다.

첫째,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유아-어머니 애착 관계에 초점을 두어 왔다. 유아-아버지 애착에 관한 초기 연구 중의 하나로서 Schaffer와 Emerson(1964)은 유아는 초기에 단지 한 사람과의 관계 형성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애착관계를 형성하며 일상적인 양육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버지에 대해서도 애착을 보인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유아 발달에서 사회적 자극활동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최근의 아버지에 관한 연구들은, 아버지가 아동 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은 적다 할지라도 아동양육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머니와 비슷하며 아동의 요구에 대해 아버지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진행된 유아-아버지 애착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형성의 시기를 규명한 장휘숙(1985)의 연구와 '낮선 상황'을 통해 12개월에서 18개월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유형을 분석한 이영환(1992a, 1992b)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

둘째, 애착을 행동체제로 간주할 때의 중요한 문제점은 제한된 연령 범위를 넘어선 유아의 애착을 측정할 수 없으며 또한 애착 그 자체의 연구보다는 애착 상관관계의 연구가 중심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즉 '낮선 상황'은 12개월 영아의 양육자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도구이기 때문에 이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연령이 한정됨으로써 애착의 발달적 변화에 대한 연구에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애착 관련 선행연구는 애착관계의 형성 과정에서 영아는 무엇을 학습하는가, 영아가 이후의 애착과정은 어떠한가, 안정과 불안정성의 개인차는 어떠한가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Waters & Deane, 1985).

세째, '낮선 상황'을 통한 애착의 반복평가는 유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실험절차를

수행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며 직접적인 훈련 없이는 점수화 방법을 배우기가 어렵다.

네째, 점수화체제가 양적인 측정보다는 유형 분류와 같은 개인차 연구에 적합하다. 특히 회피·안정·저항 애착 범주에 걸친 피험자의 분포가 매우 불균형적이기 때문에 '낮선 상황' 절차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취사선택할 여지가 적어짐으로써 평정이나 시간표집 방법보다 표본이 더 커야 한다.

다섯째, 원래 Ainsworth는 애착 연구를 가정의 자연스런 환경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실험실 상황에서 측정하는 '낮선 상황' 방법은 양육자의 일상적 행동이 아니므로 측정된 결과를 일반적인 자연스런 상황에서의 애착관계로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Hinde, 1983).

여섯째, '낮선 상황'에서의 유아의 애착유형 및 애착 행동이 유아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질적 민감성이나 낮선 것에 대한 소심성 등 유아의 개인적인 기질적 성향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 연구들(예를 들면 Kagan, 1982; Thompson, Connell, Bridges, 1988)은 '낮선 상황'에서의 영아행동에 기초한 실험결과로 진정한 애착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Waters와 Deane(1985)은 이러한 문제점을 행동체계 및 안전기저 현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애착 구성(attachment construct)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자연스런 상황에서 애착을 측정할 수 있는 애착 Q-Set을 고안하였다. 애착 Q-Set은 Bowlby의 애착이론에 근거하여 애착관계에 대한 내적 실행모형을 행동으로 기술한 90개 문항¹⁾들로 구성되어 있다. 애착 Q-Set의 각 항목은 유아의 행동에 대한 개별적인 참조를 제공해

1) Waters와 Dean(1985)은 초기 애착 Q-set을 100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나 이후 개정판(Waters, 1987)에서 90개의 문항으로 수정하였으며 이들 문항을 9개의 집단에 각 10개 항목씩 분류하도록 하였다.

주며 특히 많은 항목들의 경우 행동 발생의 특정한 맥락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찰 평가시 참조행동이 적절하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관례적인 특성평정 방법과 다른 점이다. 또한 애착 Q-Set은 생태학적 통제체계의 관점에서 애착의 전 영역에 걸친 행동 즉 유아의 안전기저와 탐색행동, 정의적 반응, 사회적 참조 및 기타 사회 인지의 여러 측면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

관찰자나 부모는 자연스런 상황에서 유아의 행동을 관찰한 다음 이를 근거로 90개의 애착 Q-Set 카드를 유아의 행동과 유사한 정도에 따라 1점에서 9점으로 Q-Sort 방법에 의해 분류한다. 이때 관찰자에 의해 분류된 유아의 점수와 애착 안정성, 의존성, 사회성, 사회적 바람직성에 관한 표준점수와의 상관계수가 곧 유아의 애착관련 구성의 점수가 된다. 따라서 분류된 점수와 표준점수와의 상관이 높을수록 유아의 애착관련 구성의 점수가 높다고 할 수 있다(Waters & Deane, 1985).

애착 Q-Sort 방법은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관찰을 하므로 편파성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간단한 문장으로 구성된 애착 Q-Set 카드와 세분화된 분류지침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도 관찰자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2시간 정도의 관찰 결과만 가지고도 관찰자와 어머니 보고의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Waters와 Deane(1985)의 연구에서 어머니와 관찰자 간의 신뢰도는 평균 .80으로 나타남— 어머니가 좋은 자료 제공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낯선 상황' 실험절차와는 달리 Q-Sort 방법은 보다 큰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애착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Q-Sort 관찰을 통해 측정된 유아의 애착 안정성에 관한 자료는 '낯선 상황' 자료를 잘 묘사해 준다. 즉 Ainsworth의 '낯선 상황'에서의 애착

유형과 애착 Q-Set에 의한 애착 안정성 간에 상관이 있으며(Vaughn & Waters, 1990), 양육자와 유아 간의 상호작용의 특성은 '낯선 상황'에서의 애착유형을 예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애착 Q-Set을 통한 애착 안정성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다. Schachere(1989)는 18~25개월 유아와 이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애착 안정성과 양육태도와 관계를 연구한 결과 따뜻하고 화를 잘 내지 않는 어머니의 영아가 안정성이 더 높았다고 보고했다. Pederson, Moran, Sitco, Campbell, Ghasquire와 Acton(1990)은 12개월 영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 행동 Q-Set과 애착 행동 Q-Set을 각각 사용하여 어머니의 민감성과 유아의 애착 안정성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이들 간에는 .40에서 .57까지의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우리나라 유아를 대상으로 애착 Q-Set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애착 연구들(이정희, 1993; 나종혜, 1993)은 3세 미만의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와 어머니간의 애착관계에 초점을 두고 연구되었다.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적극적 참여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가정의 심리적 환경을 창출하는 존재로서 어머니와 병행하여 아버지가 있음(최경순, 1992)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시점에서 유아-아버지의 애착 관계를 연구함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애착 Q-Set을 사용하여 유아와 아버지간의 애착 안정성과 의존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애착을 발달적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유아의 연령을 3세로 한정하였고, 실험상황이 아닌 자연스런 상황에서 가정에서의 Q-Sort 관찰 방법을 택하였으며, 유아와 아버지간의 애착행동을 관찰하는데 있어서 어머니가 관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타당한지를 살펴보았다.

방 법

연구대상

연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전주에 소재한 가정 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의 협조를 얻어 중류층에 속한 30~36개월 유아의 가정에 연구개요서와 동의서를 보냈다. 100개의 가정 중 73개의 가정으로부터 연구 협조를 얻었다. 이 중 관찰기록이 부실한 경우를 제외하여 분석대상은 총 70쌍의 유아-아버지가 되었다.

연구대상 유아의 평균 연령은 32.3개월이며 남아 32명 (45.7%), 여아 38명 (54.3%)이었다. 출생순위별로 볼때 첫째가 26명(37.1%), 둘째가 37명(52.9%), 그리고 셋째가 7명(10%)이었다.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34세였고 연령범위는 26~44세 사이로, 아버지의 55.7%가 32세부터 37세 사이의 연령에 해당하였다.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1세였고, 연령범위는 25~39세 사이로 어머니의 55.8%가 30세부터 34세 사이의 연령에 해당하였다. 연구대상 어머니중 취업한 어머니는 17명 (24.3%)이었고, 취업하지 않은 어머니는 53명 (75.7%)이었다.

연구도구 : 애착 Q-Set

유아와 아버지 간의 애착 안정성과 의존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Waters와 Deane(1985)이 개발한 애착행동 Q-Set의 개정판(Revision 3.0 : Waters, 1987)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애착 Q-Set을 사용한 선행연구에서 관찰자와 어머니간의 관찰 신뢰도가 높았으며, 예비조사 과정에서 아버지를 애착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경우 관찰자보다 어머니가 더 훌륭한 관찰자이며 정보 제공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행동을 관찰하여 Q-Set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절차

1. 1차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연구도구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유치원 부모교육시간을 이용하여 어머니 20명을 대상으로 애착 Q-Set의 내용과 분류방법을 설명하였다. 또한 3명의 가정을 선정하여 관찰자가 가정방문하여 관찰을 실시했으며 어머니에게도 유아의 행동을 관찰한 뒤 애착 Q-Set 카드를 분류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문항을 수정하였다.

2. 2차 예비조사

관찰자와 어머니가 가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유아의 애착 행동을 대표성 있게 보고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조사의 연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전주시내 소아과의 협조를 얻어 30에서 35개월에 해당하는 유아의 아버지 100명에게 연구개요서와 가정방문 관찰연구 협조문을 우송하였다. 그 중 관찰 연구에 참여를 희망한 아버지는 22명에 불과하였다. 이 중 15명²⁾을 대상으로 관찰자 1명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행동을 Q-Set을 통해 관찰하였다. 관찰자가 유아의 애착행동을 관찰하는 동안 어머니는 방에서 되도록 나오지 말것을 당부하였다. 관찰 1시간 뒤에 유아와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어머니에게 애착 Q-Set의 내용과 카드의 분류방법을 설명하였으며 이 과정은 어머니 1인당 약 30분 동안(설명 과정도 관찰 시간에 포함됨) 진행되었다. 따라서 총 관찰시간은 유아 1인당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가정방문 관찰 1주일뒤 관찰자가 2차 가정방문하여 어머니가 작성한 애착 Q-Set 관찰기록지를 회수하였다. 2차 예비조사시 관찰자의 가정방문 관찰과

2) 2회 방문하였으나 회사일로 갑자기 아버지의 귀가가 늦어져 관찰을 못한 경우가 3건, 처음에는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시간을 낼수 없어서 중간탈락한 경우가 4건 있었다.

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첫째, 관찰자가 방문하여 관찰하는 동안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행동이 매우 부자연스러웠다. '낮선 상황'을 통한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유형을 분석한 이영환(1992a, 1992b)의 연구에서도 아버지의 자연스런 행동을 유도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정관찰에서도 관찰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어색해 하고 무심히 T.V.만 응시하거나 신문을 읽는 등 개인적 행동을 함으로써 아버지와 유아 간에 상호작용이 별로 발생하지 않았다.

둘째, 본 연구는 가정이라는 상황에서 유아와 아버지를 관찰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집안에 존재하는 가운데서 관찰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대부분의 유아의 관심과 행동의 목표가 수시로 어머니에게로 옮겨짐으로써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행동의 측정에 어려움이 따랐다.

세째, 관찰자가 가정방문하여 아버지의 행동을 관찰한다는 사실에 대해 아버지들이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꺼려 연구대상 선정이 매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 관찰자의 가정방문 관찰을 진행하기 위해 접촉한 아버지 100명 중 15명만이 연구에 참여하였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관찰자의 가정방문 관찰 방법은 연구대상 선정에 있어서 표집의 편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네째, 애착 Q-Set 항목 중 2시간 동안의 가정방문을 통해서 관찰될 수 없는 항목이 있었다. 그러한 항목은 일시적인 관찰자의 관찰보다는 유아와 항상 함께 하는 사람(주 양육자, 주로 어머니)이 더 잘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의 2차 예비조사에서 애착 Q-Set 각 항목별로 어머니와 관찰자 간의 관찰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29 ~ .89로서 그 범위가 컸다. 신뢰도가 낮은 항목들은 주로 유아의 일상적인 행동들

로서 1~2시간의 짧은 시간동안 쉽게 관찰될 수 없는 항목인 경향이 있었다³⁾ 관찰 연구에서 관찰자간에 관찰의 일치도도 중요하지만 유아의 행동을 얼마나 대표성있게 관찰할 수 있는가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Waters & Deane, 1985, P.54).

관찰자의 가정방문 관찰 과정에서 발생한 이러한 문제점들은 관찰자의 관찰에 영향을 미치며 일시적인 방문을 통해 관찰자가 유아와 아버지간의 일상적인 애착 행동을 얼마나 대표성있게 관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반면 어머니는 유아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유아를 관찰할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으며 다른 사람에 비해 아동의 행동에 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병림, 1990). 실제로 애착 Q-Set을 사용하여 측정된 선행연구들의 경우 관찰자와 어머니간의 관찰 신뢰도는 Waters와 Deane(1985)의 경우 .59~.93(평균 .80), 이정희(1993)는 .58~.88, 나중혜(1993)는 .70으로 보고함으로써 어머니가 훌륭한 관찰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⁴⁾

사실 가정이라는 자연스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행동은 관찰자보다 어머니가 더 잘 접근할 수 있다. 어머니에게 무엇을 관찰할 것인지, 그리고 관찰한 것을 어떻게 보고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면, 또한

3) 예를 들어 *부모, 조부모 이외의 다른 사람 이 안아주는 것을 좋아한다 *아버지가 잠을 재우려 하면 울거나 싫다고 저항한다 *하루 중 대부분 즐겁게 논다 *울 때는 심하게 운다 등의 항목은 관찰자의 가정방문 관찰과정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항목들이었다.

4) 애착 Q-set의 관찰 신뢰도는 Q-set의 각 항목별 신뢰도(항목 동의: 두명의 관찰자가 전체 비취자에 부과한 각 항목별 점수들간의 상관관계)와 개별 아동에 대한 관찰 신뢰도(분류 동의: 두명의 관찰자가 특정 피험자에게 부과한 일련의 점수배열간의 상관관계)등을 살펴볼 수 있다(Waters & Deane, 1985, p.54). 본 연구에서는 전자를 사용하였으나 Waters와 Deane(1985)은 후자를 사용하였으며, 이정희(1993)와 나중혜(1993)는 어느 방법을 통해 신뢰도를 보았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문맥상 후자의 경우로 예측 된다.

관찰 보고 절차가 Q-Sort와 같이 비평가적인 항목으로 구성되며 강제적인 선택방법일 경우에는 관찰자보다 어머니가 유아의 애착행동에 더 좋은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다(Waters & Deane, 1985, p.59).

3. 본 조사

본 조사는 30개월에서 36개월 유아와 이들의 아버지 70쌍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관찰자는 1차 가정방문에서 어머니에게 애착 Q-Set의 내용과 분류방법을 설명한 다음, 어머니로 하여금 카드를 Q-Sort방법으로 분류하는 연습을 1회 실시한 뒤 카드를 뒤섞도록 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카드에 적힌 내용을 기억하면서 유아의 행동을 일주일 동안 관찰한 다음, 일주일이 지나면 Q-Set 카드를 분류하여 관찰기록용지에 결과를 기록하도록 당부하였다. 일주일 뒤 관찰자가 2차 방문하여 Q-Set 관찰기록용지를 회수하였다.

결 과

표1. 애착 안정성의 비교

연구	빈도	유아연령	애착대상	안정성범위	안정성평균(표준편차)
이영환(본연구)	70	30~36개월 (평균32.3개월)	아버지	-.30~.57	.22(.21)
Gordon(1986)	15	12~18개월	아버지	-	.27
이정희(1993)	60	13~33개월 (평균23개월)	어머니	-.13~.68	.34(.20)
나중혜(1993)	21	24~36개월 (평균32.6개월)	어머니	.08~.56	.34(.16)
Teti등(1991)	49	13~26개월 (평균18.2)	어머니	.	.44(.25)
Vaughn과 Waters(1990)	58	12와 18개월 (18개월이 6명)	어머니	-	.38
Pederson등	40	12개월	어머니	-	.40(.17)

I. 유아와 아버지간의 애착 안정성

먼저 연구대상 유아의 애착 안정성을 구하기 위하여 Waters(1987)가 제시한 안정성 기준점수와 본 연구대상 유아의 애착 Q-Set 점수와의 상관관을 구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평정한 아버지에 대한 유아의 애착 안정성 점수는 그 범위가 -.30에서 .57까지였고 애착 안정성의 평균은 .22(표준편차=.21)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애착 Q-Set을 사용한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면 <표 1>과 같다.

유아의 애착 안정성은 유아의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인다(Waters et al., 1990). 이를 문자대로 연령이 높은 유아가 애착대상에 대해 더 애착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연령에 따라 안전기저 현상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유아는 점점 자람에 따라 탐색과정에서 애착대상을 안전기저로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표 1>에서 보듯이 본 연구대상 유아가 다른 연구대상 유아보다

연령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애착 안정성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애착 안정성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2/3에 속하는 유아는 안정된 애착으로, 1/3에 속하는 유아는 불안정한 애착으로 분류⁵⁾ 하여 본 결과 애착유형의 분류 기준 점수는 .15로 나타났다. 애착유형 분류 점수가 나중혜(1993)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경우 .27, 탁아교사의 경우는 .16으로 보고하였으며 이정희(1993)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경우 .26으로 보고하였다. 이들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아버지를 애착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의 애착유형 분류 기준점수는 어머니의 경우보다 낮으며 탁아교사와의 기준점수와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대상 유아의 애착 안정성이 이처럼 낮은 결과는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를 애착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위 <표 1>에서 보듯이 애착대상이 아버지인 Gordon(1986)의 연구에서도 애착대상이 어머니인 다른 연구들에서보다 유아의 애착 안정성이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낮선 상황'을 통해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유형을 살펴 본 이영환(1992b)의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들에 비해 불안 애착의 분포가 높았던 이유는 애착대상을 아버지로 하여 영아의 애착유형을 측정했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유아와 아버지간의 애착 안정성이 어머니에 비하여 낮게 나온 이유는 유아가 어머니보다 아버지를 안전기저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덜 효율적임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애착 안정성이 유아의 성별,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II. 유아와 아버지간의 애착 의존성

유아의 애착 의존성은 본 연구대상 유아의 애착 Q-Set 점수와 Waters(1987)의 의존성 기준점수와와의 상관을 통하여 구하였다. 본 연구대상 유아의 애착 의존성 범위는 -.49 ~ .50으로 나타나 큰 범위에 걸쳐 있었으며 평균은 .01로 나타났다.

표2. 애착 의존성의 비교

연구	빈도	유아연령	애착대상	의존성범위	의존성평균(표준편차)
이영환(본연구)	70	30~36개월 (평균32.3개월)	아버지	-.49~.50	.01(.20)
Vaughn과 Waters(1990)	58	12와 18개월	어머니	-	.08(-)
Gordon(1986)	15	12~18개월	아버지(전통적)	-	.04(-)
			어머니(전통적)	-	-.01(-)
		12~18개월	아버지(비전통적)	-	-.12(-)
			어머니(비전통적)	-	-.04(-)

우리나라 애착 Q-Set연구에서는 의존성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의 선행연구와의 비교만이 가능하였으며 이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5) Ainsworth 등(1978)의 연구에서 안정애착이 66%, 회피애착이 22%, 저항애착이 12%로 나타났으며 이후의 계속된 '낮선 상황' 실험연구에서 애착유형의 비율은 이와 비슷한 분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애착연구에서는 이 비율을 기준으로 간주한다.

위 <표 2>에서 보듯이 본 연구대상 유아의 애착 의존성의 평균은 선행연구들과 비교할때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표에서 보듯이 의존성의 범위가 큰 폭으로 나타나 평균의 비교 해석에는 주의될 요한다. 애착 의존성이 유아의 성별과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했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Ⅲ. 애착 안정성과 의존성 간의 관계

유아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애착대상자를 안전기저로 사용하는 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애착 안정성은 증가하는 반면 애착 의존성은 감소하게 된다(Waters et al., 1990). 따라서 유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두 구성의 점수 차이는 커지게 된다.

본 연구대상 유아의 애착 안정성과 의존성 간의 상관은 $r=.05$ 로서 애착 구성 간에 서로 독립적이었다. Waters와 Deane(1985)의 연구에서는 안정성과 의존성 간의 상관계수가 12개월 유아의 경우 $-.09$ 로서 서로 독립적이었으나 36개월 유아의 경우는 $-.36$ 으로서 서로 부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하여 볼 때 본 연구대상 유아의 연령이 30~36개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착 구성간의 개념적 유사성이 Waters와 Deane(1985)연구에서의 12개월 유아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가 애착대상을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로 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에 유아의 애착 안정성이 어머니를 애착대상으로 하여 진행된 선행연구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따라서 안정성과 의존성 간의 관계가 12개월 유아의 경우에서처럼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논 의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Q-Sort 가정 관찰방법을 통해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행동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어머니는 관찰자보다 유아의 일상적인 행동에 더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훌륭한 정보제공자가 될 수 있다. 둘째, 애착 Q-Set에 관한 선행연구들과 비교할때 우리나라 3세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안정성은 비교적 낮은 경향을 보이며 의존성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유아의 애착 안정성과 의존성은 $r=.05$ 로서 서로 독립적인 관계로서 Waters와 Deane(1985) 연구에서의 12개월 유아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안정성이 어머니를 애착대상으로 하여 진행된 선행연구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였다는 점은 유아가 아버지를 어머니만큼 안전기저로 잘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낮선 상황'을 통해 측정된 아버지에 대한 애착유형이 어머니에 대한 애착유형에 비해 불안 유형의 분포가 높게 나타났던 이영환(1992b)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애착 안정성이 유아가 애착 대상자를 안전기저로 사용하는 정도를 반영하며 또한 '낮선 상황'에서의 애착유형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Vaughn & Waters, 1990)결과를 고려할 때 앞으로의 애착 연구에서는 유아의 요구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성이나 민감성과 같은 양육의 질적인 측면이 유아의 애착 안정성 및 관련 구성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애착 Q-Set이 개발된 이래 애착 안정성과 이를 예측하는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예를들면 Pederson et al., 1990; Schachere, 1989; Teti et al., 1991; 이정희, 1993) 그 이외 애착관련 구성, 즉 애착 의존성·사회성·사회적 바람직성 등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앞으로의 애착 연구에서는 애착관련 구성을 모두 포함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특성으로 성별과 출생순위를 고려하였으나 이들 변인은 애착 안정성과 의존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애착연구에서 특히 '낮선 상황'에서의 애착유형이 유아의 기질을 반영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점 (Sroufe, 1985)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연구는 유아의 기질과 같은 특성이 애착 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Waters(1987)의 애착 Q-Set 기준점수를 통하여 3세 유아의 애착 안정성과 의존성을 구하였다. 유아의 애착행동은 학습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양육관습이나 문화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Waters & Deane, 1985). 따라서 우리나라 유아를 대상으로 애착 안정성 및 관련 구성의 기준점수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애착관련 구성의 기준점수는 각 구성에 관한 전문가 5~6명이 가상적 유아를 대상으로 애착 Q-Set을 분류하여 구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애착 연구는 아동에 관련된 여러 분야 학자들의 협동작업이 요구된다.

애착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이 대부분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의 영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험실에서 진행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가정이라는 자연상황에서 Q-Sort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36개월 유아와 아버지의 애착관계도 수량화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어머니는 자연상황, 즉 가정에서 유아-아버지간의 애착관계에 관한 훌륭한 정보 제공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아버지도 유아-어머니 간의 애착관계에 대한 정보 제공자가 될 수 있다. Gordon(1986)의 연구에서처럼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관찰자로 기여한다면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관계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관계의 특성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Q-Sort 방법은 애착연구에 있어서 '낮선 상황'

절차에 비해 큰 표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경제적이다. 또한 12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유아에 대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애착의 발달적 연구에도 적합하다. 애착 안정성과 의존성 간의 관계가 유아의 연령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추적해 봄으로써 애착의 발달적 변화에 관한 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발달적 관점에서 유아-아버지간의 애착관계 연구가 진행됨으로써 12개월 영아에 한정되지 않고 영아기 이후의 애착과정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나종혜(1993). 어머니와 탁아교사에 대한 유아의 애착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병림(1990). 아동의 생활능력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지각. 이화여대 기쁜 교수논문집. 38-74.
- 이영환(1992a). '낮선 상황'에서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질에 관한 사례연구, 아동학회지. 13(2), 5-17.
- 이영환(1992b). '낮선 상황'에서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유형.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희(1993). 취업모와 자녀간 애착 안정성과 관련변인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희숙(1985). 생리적 지표로 측정된 부모에 대한 애착형성의 시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경순(199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insworth, M.D.S., Blehar, M.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Ainsworth, M.D.S., & Wittig, B.A.(1969). Attachment and the exploratory behavior of one-year-olds in a strange situation. In B. M.Foss (Ed.), *Determinants of infant behavior* (Vol.4, pp.113-136). London : methuen.
- Gordon, J.A. (1986). *Qualitative differences in the attachment between nontraditional and traditional fathers and their infants*. Ph. D. Dissertation, The wright Institute (Berkeley).
- Hinde, R. A. (1983). Ethology and child development. In P.H. Mussen, M.M. Haith & J. J. Campo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2. Infancy and developmental psychology (4th ed., pp.27-94)*. New york: Wiley.
- Kagan, J. (1982). *Psychological research on the human infant:An evaluative summary*. New York : W.T.Grant.
- Pederson, D. R., Moran, G., Sitko, C., Campbell, K., Ghesquire, K., & Acton, H. (1990). Maternal sensitivity and the security of infant-mother attachment : A Q-Sort study. *Child Development*, 61, 1974-1983.
- Schaffer, H. R., & Emerson, P.E. (1964). The development of social attachments in infancy.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29(3, Serial No.94).
- Schachere, K. (1989). *Maternal employment during infancy: Family processes that contribute to the security of mother-infant relationship*.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 Sroufe, L.A. (1985). Attachment classifi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fant-caregiver relationships and infant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56, 1-14.
- Teti, D.M., Nakagawa, M., Das, R., & Wirth, O. (1991). Security of attachment between preschoolers and their mothers : Relations among social interaction, parenting stress, and mothers'sorts of attachment Q-Set. *Developmental Psychology*, Vol.27, No.3, 440-447.
- Thompson, R.A., Connell, J.P., & Bridges, L.J. (1988) . Temperament, emotion, and social interactive behavior in the Strange Situation : A component process analysis of attachment system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59, 1102-1110.
- Vaughn, B. E., & Waters, E. (1990). Attachment behavior at home and in the laboratory : Q-Sort observations and strange situation classifications of one-year-olds. *Child Development*, 61, 1965-1973.
- Waters,E.(1987). *Attachment Behavior Q-Set* (Revision 3.0).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Stony Brook, NY 11794.
- Waters, E., & Deane, K. E. (1985). Defining and assess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attachment relationships : Q-methodology and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pp.41-65).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1-2. Serial No.209).
- Waters, E., Kondo-Ikemura, K., Posada, G., & Richters, J. (1990). Learning to love : Mechanisms and milestones. In M.Gunner, & L. A. Sroufe(eds.),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vol.23, pp.217-255) Hillsdale, N.J.:Lawrence Erlbaum Associates

Three Year-Old Child-Father Attachment Security and Dependency: Q-Sort Observation at Home

Young-Hwan Ye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Chonbuk Sanup University

70 fathers and their 3-year-old children were observed at home by mothers. Attachment security and dependency were scored from Q-Sort reports of mothers using the Waters Attachment Behavior Q-Set(Revision 3.0).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the range of attachment security was from $-.30 \sim .57$ (mean, $.22$) and that of attachment dependency was from $-.49 \sim .50$ (mean, $.01$). Attachment security and dependency were conceptually orthogonal ($r = .05$). The child's sex and the birth order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effect on the attachment security and dependency.

This study focused on the child-father attachment showed lower attachment security than the child-mother attachment of the former studies. This means that father's role has less effectiveness in secure base for the child than mother's.